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자아발견과  
정체성 문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任 叡 智

2017年 8月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자아발견과  
정체성 문제

指導教授 卞 鐘 民

任 叡 智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任叡智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8月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자아발견과 정체성 문제

任 叡 智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흑인 여성들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라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 차별까지 받는 이중의 억압 속에서 살아왔다. 백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과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 흑인들을 차별하고 침묵과 순종을 강요해왔고, 이런 환경 속에서 흑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해왔다. 흑인 남성들은 또한 자신들이 받은 차별을 흑인 여성들에게 되풀이하여 남성성과 우월함을 보상받으려 하였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흑인 여성들의 재능과 노력은 소외되어 왔으나 1970년대 이후로 많은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등장과 유능한 흑인 여성 작가들이 우수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흑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1944-)의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은 백인과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으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던 한 흑인 여성 쉘리가 그녀 주위에 있던 독립적인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성숙한 자아를 지닌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워커의 세 번째 장편소설로, 미국 흑인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표현하였으며 그녀에게 흑인여성 최초로 풀리처 상(Pulitzer Prize)과 전미도서상(The American Book Award)의 영예를 안겨 준 작품이기도 하다.

워커는 주인공 쉘리(Celie)와 네티(Nettie)가 쓰는 편지의 형식을 통해 당시 흑인 여성들이 처해 있던 비극적이고 억압적인 삶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미국 내에 있는 흑인들,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억압에 시달렸던 흑인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을 통하여 철저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흑인 여성 문학이 그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었다.

이 작품 속에서 쉘리는 의사소통이 단절된 억압적 상황에서 살아가다 육체의 아름다움

및 신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한 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블루스 가수 슈그(Shug)도 쥘리를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아픔을 치유하며 정체성을 회복한다. 또한 쥘리의 여동생 네티는 아프리카로의 선교를 통하여 흑인이자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된다.

위커는 다양한 형태로 민권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작가로 흑인 여성의 문제를 흑인 공동체 안의 문제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생각하였고 그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녀는 『컬러 퍼플』을 통하여 흑인 여성들이 받아왔던 억압과 차별, 갈등에서 벗어나 인격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흑인사회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II. 흑인 여성의 이중적 억압과 정체성의 상실 ..... | 6  |
| III. 흑인 여성들의 자아 발견과 정체성 확립       |    |
| 1. 쉘리 : 몸의 발견과 자아 성장 .....       | 15 |
| 2. 슈그 : 성적 자유와 실존의 주체성 .....     | 28 |
| 3. 네티 : 영적 자아의 발견과 성장 .....      | 38 |
| IV. 결론 .....                     | 45 |
| 참고문헌 .....                       | 48 |
| ABSTRACT .....                   | 51 |

## I. 서론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1944- )는 대표적인 흑인 여성 작가로 1960년대부터 시, 소설, 수필, 강연,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민권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 미국소설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주로 백인 남성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가 되면서는 미국에서 흑인 여성문학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전까지는 흑인 여성 문학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1960년대 흑인 문학에서 ‘흑인’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로 ‘흑인 남성’ 을 의미했기 때문이다.<sup>1)</sup> 1960년대까지 미국의 흑인 문학은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1818-1895), 라이트(Richard Wright, 1908-1960), 볼드윈(James Baldwin, 1924-1987)등의 흑인 남성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 흑인 여성 작가들은 문학 활동을 해왔음에도 주로 흑인 남성들과 백인 남성들이 문학작품을 평가했기 때문에 문단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흑인 남성들은 백인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하여 빼앗긴 흑인들의 인권을 되찾으려 소리를 높였지만, 흑인 사회 내부에서 그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몰들여져 있어 자신들이 백인들에게 받은 억압과 차별을 흑인 여성들에게 그대로 재생산하곤 했다. 흑인 여성 작가들은 백인에게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흑인 남성들에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문학계에서 제대로 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흑인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작가들이 흑인 문학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유능한 흑인 여성 작가들이 우수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왔다는 점이다.<sup>2)</sup> 흑인 남성 작가들이 흑과 백이라는 인종 문제에 몰두했으나 흑인 여성 작가들은 인종문제, 그리고 성에 대한 문제도 작품에서

1) Barbara Christia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p. 76.

2) 천승걸, 『미국 흑인 문학과 그 전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 294.

다루었다. 이 시기 페미니즘은 백인을 중심으로 한 주류 문학뿐만 아니라 흑인 문학 같은 소수 민족 문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sup>3)</sup> 쇼월터(Elain Showalter)는 여성 작가들의 저작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feminine, feminist, 그리고 female 중에서 female 단계에 해당하는 여성 문학의 주요 주제는 자기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sup>4)</sup> 흑인 여성 작가들은 억압 속에 있는 여성들의 자아를 되찾으려 하였으며 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흑인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확립하고자 하면서 백인중심, 남성중심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흑인 여성 문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허스튼(Zora Neale Hurston, 1891-1960)은 흑인 여성 문학의 전통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그녀의 작품 중 대표작인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Their Eyes Were Watching God*, 1937)는 미국 대학의 교양 필독서로 손꼽히기도 한다. 또한 밤바라(Toni Cade Bambara, 1939-1995)는 흑인 공동체 내부의 갈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공동체적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흑인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슨(Toni Morrison, 1931-)은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진 작가로 흑인의 정신적인 유산을 이어나가려는 신념을 가지고 흑인 공동체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작품 속의 흑인 여성들은 백인 중심과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저 현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희생적인 어머니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창조적인 흑인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흑인 여성 문학은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고통 받던 흑인 여성들이 그저 침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고통의 역사를 바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특히 19세기 흑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주된 관심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모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5)</sup> 또한 흑인 여성 문학에서는 다른 인물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에 도달하는 인물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같은

3) 김옥동, 「미국 흑인 문학의 계보」, 『외국문학연구』 제15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3): 52.

4) Elain Showalter, *A Literature of Their Ow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1977), p. 13.

5) Sandra Gilbert &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79), pp. 76-77.



공동체 속 인물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도움으로 힘든 현실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주로 그려낸다. 또한 여성 인물들은 성차별의 주체였던 흑인 남성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그들 또한 흑인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커는 흑인 여성 작가들과 같이 흑인사회 안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흑인사회, 특히 흑인 여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 또는 동시대의 독자들이 처해 있던 현실을 작품 속에 투사해 왔다.<sup>6)</sup> 이는 위커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그녀의 작품의 소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커는 미국 남부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수많은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몸소 겪으며 자란다. 그녀는 가난과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으로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고, 8살 때 오빠가 쏜 장난감 총에 맞아 한 쪽 눈을 크게 다치고 실명까지 하기에 이른다. 이후 다친 눈 때문에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문학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녀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은 억압받는 흑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의 작품들에 큰 영향을 주어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 1982) 뿐만 아니라 『그랜지 코플랜드의 제3의 길』(*The Third Life of Grange Copeland*, 1970), 『사랑과 고뇌-흑인여자들의 이야기』(*In love and Trouble: Stories of Black Women*, 1973), 『메리디안』(*Meridian*, 1976)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위커 작품의 특징은 흑인들, 특히 흑인 여성들의 투쟁,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 자기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면서 발하는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sup>7)</sup> 특히 그녀의 작품은 백인 사회와 가부장적 흑인남성으로부터 받는 흑인 여성들의 불평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위커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인 『컬러 퍼플』은 1930년대 미국 흑인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표현한 작품으로 백인과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억압 받으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던 한 흑인 여성 썰리가 그녀 주위에 있던 독

6) Gloria Steinem, "Do You Know This Woman? She Knows You: A Profile of Alice Walker," *MS* (June, 1982): 89-93.

7) Christian, p. 82.

립적인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성숙한 자아를 지닌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은 또한 그녀에게 여성 최초로 풀리처 상(Pulitzer Prize)과 전미도서상(The American Book Award)의 영예를 안겨 주었다. 맥패든(McFadden)은 이 작품을 워커가 “가난하고, 못생기고, 교육받지 못한, 시골에서 온 흑인 소녀 쥘리를 주인공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가치를 통해 용서가 담긴 사랑, 역경에서의 용기, 자립, 그리고 자기주장에 대한 주제의 보편성에 대해 그녀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창조했다”<sup>8)</sup>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헨더슨(Mae G. Henderson)은 워커가 흑인 여성들을 남성중심사회가 규정한 성 역할로부터 해방시켰고 흑인 공동체 내에서 여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높게 샐다.<sup>9)</sup>

워커는 『컬러 퍼플』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은 흑인 여성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워커가 추구하는 삶의 변화와 성숙은 오직 자기 삶에 의존하여 그녀의 소설 주제는 이런 변화와 성숙을 유발하여 촉진시키는 자아탐구와 실현에 대한 것이다.<sup>10)</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워커는 흑인 여성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그녀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흑인 여성 문학에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와 우정이 그녀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sup>11)</sup>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도 혼자 힘이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며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컬러퍼플』은 서간체 형태의 소설로 여주인공 쥘리가 신에게, 그리고 여동생 네티가 언니인 쥘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비극적이고 억압적인 삶을 표현하는데, 이런 서간체 형식은 당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8) Charles L. Proudfit, “Celie’s Search for Identity: A Psychoanalytic Developmental Reading of Alice Walker’s *The Color Purple*,” *Contemporary Literature* 32.1 Wisconsin: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91): 12.

9) Mae G. Henderson, “*The Color Purple*: Revisions and Redefinitions,” ed. Harold Bloom, *Alice Walker,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9), p. 79.

10) 고지훈, 「Alice Walker의 소설론과 작품세계: 삶은 변화와 성숙의 터전」, 『미국학논집』 제 29집 1호(1997): 99.

11) Jennifer L. Fleissner, *Women, Compulsion, Modernity: The Moment of American Natural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2004), pp. 276-278.

흑인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서술 기법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행위는 쉘리가 고통을 없애고 새로운 자아를 구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sup>12)</sup> 위커는 이 소설 속에서 흑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언어를 보여주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쉘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크리스찬(Barbara Christian)은 “그녀가 자연스러운 흑인의 언어로 그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쉘리의 변화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고, 허스튼(Zora Neale Huston) 이후 그 어떤 작가도 위커가 『컬러퍼플』에서 표현한 만큼 흑인들의 일상어의 본질을 표현한 작가는 없었다”<sup>13)</sup>라고 평가한다.

앨리의 위커의 『컬러퍼플』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연구들은 주로 그녀가 주창한 개념인 우머니즘에 대하여 혹은 이 소설의 주인공 쉘리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쉘리의 정체성 확립 과정뿐만 아니라 흑인여성으로서 슈그와 네티의 정체성 확립과정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흑인여성의 자아발견과 정체성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컬러퍼플』을 통하여 흑인 여성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살펴보고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며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제 II장에서는 주인공 쉘리를 중심으로 흑인여성들이 이중으로 겪은 차별과 억압 그리고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주인공 쉘리, 한 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블루스 가수 슈그,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배움에 힘쓴 쉘리의 여동생 네티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2) King-Kok Cheung, “Imposed Silences in *The Color Purple* and *The Woman Warrior*,” *PMLA* 103.2 (1988): 168.

13) Christian, p. 94.

## II. 흑인 여성에 대한 이중의 억압과 정체성의 상실

흑인 여성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차별과 또 여성이라는 성차별의 이중적 억압 속에서 살아왔다. 강제로 미국으로 끌려와 노예가 된 흑인들은 부당한 차별과 서러움을 겪었다. 남북 전쟁 이후 백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과 우월성을 흑인들이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 흑인들을 차별하고 침묵하기를 강요해왔다.<sup>14)</sup>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흑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순응을 강요당해 왔는데, 흑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백인 사회에서 받은 차별을 흑인 여성들에게 되풀이하여 백인들에게 박탈당한 남성성과 여성에 대한 우월함을 보상받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흑인 여성들은 백인은 물론 흑인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는 노리개 취급을 받았고 이유 없는 멸시와 학대 속에서 억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왔다.

흑인 여성작가들은 이렇게 인종과 성의 문제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당해온 흑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백인들에 의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같은 흑인 사회 안에서 자행되었던 성차별의 현실까지 다루었다. 그리하여 흑인 여성 비평가들은 무엇보다도 성과 인종의 정치학, 흑인과 여성 정체성이라는 양면이 어떻게 흑인 여성들의 작품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5)</sup> 다른 흑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위커는 그녀의 작품들을 통하여 남부 흑인 여성들의 무기력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흑인 여성들은 인간 이하로 여겨지며 물건취급을 받았다.<sup>16)</sup> 이러한 흑인 여성들이 받고 있는 이중적 억압과 정체성 상실의 문제는 위커의 소설 『컬러 퍼플』에 등장하는 흑인 소녀 쉘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쉘리가 받고 있는 억압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의붓아버지 알폰소

14) Lean'tin Bracks, *Writing on Black Women of the Diaspora: History, Language, and Identity* (New York: Garland, 1988), pp. 85-86.

15)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여성 해방 문학의 논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p. 253.

16) Yvonne Johnson, *The Voices of African America Women; The Use of Narrative and Authorial Voice in the Works of Harriet Jacobs, Zora Neale Hurston, and Alice Walker* (New York: Peter Lang, 1988), p. 81.

에 의한 성폭행, 둘째, 결혼 후 남편 미스터\_\_\_에 의해 자행된 폭행과 구속이 그것이다. 『컬러 퍼플』은 “너는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죽게 될 테니까”<sup>17)</sup>라는 쉘리 아버지 알폰소(Alphonso)의 협박으로 시작된다. 쉘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신에게 쓰는 편지를 통하여 표현한다. 침묵을 강요당하여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없어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상대로 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쉘리의 이야기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중이나 듣는 사람이 없는 형태로 지속된다. 반복적으로 못생기고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녀는 충분한 교육과 교육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늘 망설인다.<sup>18)</sup>

쉘리는 친아버지라고 믿었던 의붓아버지 알폰소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아이도 두 명이나 낳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알폰소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빼앗아가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키우는지는 자식이 자아 형성을 해 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의붓아버지인 알폰소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쉘리는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된다.

알폰소는 쉘리가 무식하다며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빼앗고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쉘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티와 결혼하기를 바랐던 미스터\_\_\_와 쉘리를 결혼시켜 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알폰소는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파는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결혼 당사자는 쉘리지만 이에 대한 선택권은 쉘리가 아닌 알폰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 형식을 취했을 뿐 이 과정은 노예를 매매하는 흥정과 다를 바가 없다.

저 애는 못생겼어, 라구 아버지가 말했서요. 그런데 힘든 일에는 이골났지. 그런데다 깨끗한 아이야. 그리고 하느님이 저 애 길을 잘드려노았지. 자네 마음대로 무엇이냐 다 해도 되고, 그러면 저 애 자네더러 먹여 달라 옷 달라 보채지

17) Alice Walker. *The Color Purple* (New York: Harcourt, 2003), p. 1. 이후 텍스트로부터의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쪽수만 명기함. 번역문은 안정효, 『컬러 퍼플』 (서울: 도서출판 청년정신, 2007)을 참조하였음.

18) Cheung, p. 165.

도 안아.

... 아버지가 말하기를,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 저 애 처분해 버려야해. 집에서 가치 데리고 살기에 나이 너무 만이 먹었거든. 다른 애들에게 나쁜 영양 끼칠 테고. 저 애 제 이부자리는 가지고 가. 헛간 뒤에서 저 애가 키우는 암소도 끌고 가도 조아. (8)

She ugly. He say. But she ain't no stranger to hard work. And she clean. And God done fixed her. You can do everything just like you want to and she ain't gonna make you feed it or clothe it.

... Fact is, he say, I got to git rid of her. She too old to be living here at home. And she a bad influence on my other girls. She'd come with her own linen. She can take that cow she raise down there back of the crib.

노예를 판매하는 흥정은 흑인인 노예와 백인인 주인과의 관계가 인간적이지 못하고 완벽한 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다. 알폰소는 썰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노예로 취급하면서 썰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썰리와 결혼을 망설이는 미스터\_\_에게 덤으로 소 한 마리까지 끼워준다고 제안하며 흥정한다. 이 과정에서 알폰소는 썰리를 노동력의 한 수단이자 상품으로 취급하여 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무시당한 채 알폰소와 알버트의 거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엄마로서의 역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물론이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모두 빼앗긴다.

이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종속 관계였던 의붓아버지와 관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때문에 썰리는 남편을 알버트(Albert)라는 이름 대신 미스터\_\_라고 부른다. 이 작품에서 썰리에게 가장 참혹한 고통을 주는 사람은 강력한 남성적 인물인 썰리의 남편 미스터\_\_이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이름을 삭제한 것이다.<sup>19)</sup> 썰리에게 남편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다름없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19) Molly Hite, *The Other Side of the Story: Structures and Strategies of Contemporary Feminist Narrative* (Ithaca: The Univ. of Cornell Press, 1989), p. 111.

의도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쉴리의 결혼 생활 내내 슈그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스터\_\_\_는 의붓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쉴리를 괴롭힌다. 이런 모습을 통해 쉴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포가 아버지한테 왜 나를 때리느냐고 물었어요. 미스터\_\_\_가 말하기를, 내 마누라니까 그런다. 거기다가 또 저 여자 고집불통이거든. 여자들 조을 때란 기 꺾해야 ... . 그이는 말끝을 맺지 안았어요. 그이는 늘 그러듯이 턱을 신문 위로 내밀기만 했어요. 그 모습 보니 아버지가 연상되더군요. (23)

Harpo ast his daddy why he beat me. Mr.\_\_\_\_ say, Cause she my wife. Plus, she stubborn. All women good for-he don't finish. He just tuck his chin over the paper like he do. Remind me of Pa.

미스터\_\_\_는 쉴리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억압하며 쉴리를 단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 남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쉴리의 의붓아버지가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침해하여 확대한 사실이나, 백인 사회가 흑인 지역 사회의 삶을 방해한 모습은 흡사하다.<sup>20)</sup> 흑인 남성들은 백인들에게 받았던 차별과 억압을 같은 흑인 사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생산한다. 백인들은 인종차별을 통해 흑인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수많은 흑인 여성들은 성차별에 의해 더욱 가혹하고 잔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sup>21)</sup> 이런 상황에서 흑인 사회에서는 다 함께 힘을 합쳐 그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히려 흑인 남성들은 보호가 필요한 흑인 여성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며 마치 여성들을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 나머지, 흑인 여성들은 이중 차별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기 때문에 가장의 힘과 권력을 침해하는 것을 신을 거스르는 일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쉴리에게 신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기도 하지만 남성을 신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역설적 의

20) Bracks, p. 86.

21) Bell Hooks, *Ain't I a Woman: Black Women and Feminism* (Boston: South End Press, 1981), p. 43.

미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한다. 실제 신은 이 소설 내에서 쉘리와 같은 어린 흑인 여성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 쉘리는 의붓아버지와 알버트를 신과 동일시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저항의 의지 없이 폭력과 학대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미스터\_\_\_는 쉘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쉘리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당연시 여기고 일상적으로 쉘리를 구타한다.

그이는 아이들 때리는 식으로 나 때려요. 하지만 그이는 자기자식들은 거의 때리는 적 업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쉘리, 허리띠 가지고 와. 아이들 방에서 나가 틴바구니로 안을 들어다봅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안으려고 애쓰는 도리바께 어쩔 수 업서요. 나는 내가 나무 되었다 상상합니다. 속으로 이러케 생각해요. 쉘리, 너는 나무란다. 그래서 나는 나무들이 사람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23)

He beat me like he beat the children. Cept he don't never hardly beat them. He say, Celie, git the belt. The children be outside the room peeking through the cracks. It all I can do not to cry. I make myself wood. I say to myself, Celie, you a tree. That's how come I know trees fear man.

이와 같이 쉘리는 미스터\_\_\_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할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은 거의 때리지 않으면서 쉘리를 때릴 때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현실을 맞이하여 쉘리는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슬픔이나 아픔에 무감각하도록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자신의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쉘리가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자아와 가치를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쉘리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은 미스터\_\_\_의 여동생 케이트(Kate)였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케이트는 자신의 오빠 알버트나 조카인 하포(Harpo)에게 쉘리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낸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쉘

22) Gina Wisker, *Teaching African American Women's Writing* (New York: Martin's, 2010), p. 26.



리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오빠와 조카가 썰리를 대하는 태도를 안타까워한다. 그녀는 알버트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밭일을 하며 미스터\_\_\_의 폭력에 시달리는 썰리를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썰리의 옷을 사달라고 한다.

썰리한테 옷 좀 사줘, 하고 미스터\_\_\_에게 시누이가 말했어요.

옷이 필요하대? 라구 그이가 물었어요.

보면 몰라?

그이가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초리 똥이라도 쳐다보는 식이었어요. 저게 뭐가 필요하다 그런다 말이지? 그의 눈초리는 그러케 말하는 기분이었어요. (21)

Buy Celie some clothes. She say to Mr.\_\_\_\_. She need clothes? he ast. Well look at her. He look at me. It like he looking at the earth. It need somethin? his eyes say.

이러한 여동생의 요청에도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알버트의 모습을 보면서 썰리는 마치 그가 자신을 “그것”(it)이라고 칭했다고 생각한다. 그녀에 대한 의붓아버지와 남편의 학대와 억압이 썰리 자신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사물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케이트는 썰리에게 스스로 싸워서 힘든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아이들하고 싸워야 해요, 썰리. 내가 올케 대신 싸워 줄 수 없으니까요. 올케는 스스로 싸워야 해요.” (22)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케이트의 충고에도 썰리는 반응하지 않은 채, 싸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썰리에게 싸워야 한다는 충고를 한 것은 케이트뿐만이 아니다. 썰리가 결혼을 한 뒤 의붓아버지와 집에 남아 있던 썰리의 여동생 네티(Nettie)도 집을 나와 썰리를 찾아와서 언니는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애들한테 그렇게 당하기만 해서 안 된다고 네티가 그랬어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사는지 아이들한테 보여 줘야 한다구요.

주도권 아이들이 쥐고 살아, 라구 나 말했어요.

하지만 네티 끈질기게 설득 계속하기를, 언니 싸워야 해.

그런데 나 어쩌케 싸워야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나 그냥 견디는 일 말고 하나도 몰라요. (17-18)

Don't let them run over you, Nettie say. You got to let them know who got the upper hand. They got it, I say. But she keep on, You got to fight. You got to fight. But I don't know how to fight. All I know how to do is stay alive.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동생이 충고를 하지만 쉘리는 스스로 어떻게 싸워야하는지도 모르고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는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쉘리는 인간성을 침해받았을 때 발휘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인, 화를 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조차 박탈당한다.<sup>23)</sup> 쉘리에게는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 있을 뿐 자아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쉘리의 수동적인 무저항의 태도는 그녀 혼자만의 탓은 아니다. 쉘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잔인함에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강한 생존 의식 때문이다.<sup>24)</sup> 어릴 적부터 계속 되었던 아버지의 협박과 폭행, 이로 인한 고통은 어린 나이의 쉘리가 견뎌내기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그녀가 누군가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 늘 엄마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쉘리의 모습은 당시 억압과 차별 속에 살던 흑인 여성이 선택할 수 있었던 생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 여성들은 백인들에게 받는 학대 외에도 같은 인종인 흑인 남성에게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에 대항하기 보다는 순종과 침묵을 선택한다. 또한 흑인 여성들은 성적인 관념이 문란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는 그녀들이 역사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참여하였고 남성들에게 보호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예 소유자들이 그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흑인 여성들은 그들에 대한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당한 사회적 억압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 당시 흑인 여성들의 유일

23) Tuzyline Jita Allan, *Womanist and Feminist Aesthetics* (Athens: Ohio UP, 1995), p. 84.

24) Wendy Wall, "Lettered Bodies and Corporeal Texts in *The Color Purple*,"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6 (Spring, 1988), p. 85.

25) Julia S. Jordan-Zachery, *Black Woman, Cultural Images, and Social Policy* (Leiden: Taylor & Francis, 2009), pp. 32-33.

한 삶의 방식이자 일종의 저항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전혀 통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썰리의 이러한 태도는 알버트와 결혼한 후까지도 이어져서 남편인 알버트에게 뿐만 아니라 썰리에게 돌을 던지고 썰리를 괴롭히는 알버트의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썰리는 결혼 후 자신을 둘러싼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일들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내가 미스터 \_\_\_\_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모두들 얘기한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잘해 줘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정을 하나도 느끼지 안아요. 하포의 잔등을 쓰다듬어 주어도 개를 쓰다듬어 주는 기분만도 갖지를 못해요.

마치 나무 토막을 쓰다듬는 기분 갖다고나 할가요. 살아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식탁이나 화장농 그런 거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안키는 마찬가지예요. (30)

Everybody say how good I is to Mr.\_\_\_\_ children. I be good to them. But I don't feel nothing for them. Patting Harpo back not even like patting a dog. It more like patting another piece of wood. Not a living tree, but a table, a chifferobe. Anyhow, they don't love me neither, no matter how good I is.

미스터\_\_\_\_의 아들인 하포가 친엄마가 살해되는 악몽을 꾸며 힘들어 할 때도 하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며 모성애를 발휘하여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지만 나무토막, 그것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마치 화장농 같은 물건을 쓰다듬는 기분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녀는 미스터\_\_\_\_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주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정의 교류 없이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자 의무감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붓아버지와 남편에게 받아왔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견뎌내기 위한 무감각한 나무의 모습이 한층 더 사물화되어 피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한 여성으로 변화하기 전 썰리의 삶은 가혹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썰리는 사랑받고 자라야 할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라 믿었던

알폰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새로운 출발과 행복을 위한 결혼 생활에까지 억압과 폭력이 이어졌는데, 이는 바로 참혹했던 당시 흑인 여성들의 삶이라 볼 수 있다. 켈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 흑인 여성들은 흑인 사회 내에서도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흑인이라는 인종차별과 여성이라는 성차별까지, 이중적 차별과 억압 속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저항 의식 없이 그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만으로 삶을 영위해간다.

### III. 흑인 여성들의 자아 발견과 정체성 확립

#### 1. 쉘리 : 몸의 발견과 자아 성장

위커는 작품 전반부에서 가부장제 하에서 흑인 남성에게 의해 고통 받는 쉘리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제 쉘리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성 인물들의 영향으로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쉘리는 소피아, 슈그, 네티와의 관계를 통해 남편에게 저항할 힘을 얻고 자아를 인식한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남편 알버트의 폭력과 억압 속에 살고 있던 쉘리에게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며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식을 처음으로 심어준 것은 알버트의 아들인 하포의 아내 소피아(Sofia)이다. 소피아는 흑인 여성 전사로, 그녀의 공격성은 그녀를 예측시키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냉혹하고 잔혹한 대우와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대항하는 소피아의 모습은 성적, 인종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쉘리의 모델이 된다.<sup>26)</sup> 소피아는 마치 여전사처럼 키가 크고 건장하며 소피아의 다른 여자 형제들도 아마존을 연상하게 하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는 아버지나 다른 남자 형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련해 왔기 때문이다. 소피아는 자신은 지금까지 싸우기만 하면서 살아왔으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쉘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온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쉘리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매사에 대담하게 평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에 쉘리는 놀라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기 자신을 사물화시켜 외부의 일들에 무디어진 쉘리의 의식을 깨우는 실마리가 된다.

소피아는 백인 시장과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토록 강인한 모습이었던 소피아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

---

26) Cheung, p. 167.

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게 된다. 다른 흑인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강했던 그녀가 이제 다른 흑인 여성들처럼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사회의 이중적 차별을 침묵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감옥에서 5년이나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게 된다. 이는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한 흑인 여성이라 해도 사회적 편견을 뛰어 넘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강인한 의지를 꺾지 않고, 감옥 안에서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살인을 꿈꾸는 등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은 쉘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본보기가 된다.

쉘리는 매사에 자기표현을 아끼고 순종적이었지만 유독 여동생 네티에 대해서는 강인한 면모를 드러낸다. 의붓아버지 알폰소가 네티에게 눈독을 들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네티가 자신처럼 겁탈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희망을 놓고 차라리 자신을 겁탈하라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쉘리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네티를 보호하려는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네티가 교회에서 애가 셋이나 있는 남자를 알게 되어 그 남자가 네티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네티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될까 봐 걱정하며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쉘리는 아픈 엄마를 대신하여 네티에게 따뜻한 엄마와 같은 존재이고 비록 자신의 아이들은 낳자마자 빼앗겨서 볼 수 없으나 지극한 모성애로 동생 네티를 보살핀다. 이런 모성애는 쉘리가 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준다.

쉘리가 결혼 후 의붓아버지 알폰소의 핍박과 폭력을 피해 여동생 네티가 쉘리를 찾아왔지만 같이 살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예전부터 네티를 눈 여겨 보던 미스터\_\_\_가 네티를 겁탈하려 하자 네티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쉘리의 집을 떠나게 된다. 네티는 쉘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사 사무엘(Samuel)과 콜린(Colin) 부부를 찾아가고 이들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다. 아프리카로 떠난 네티는 쉘리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지만 미스터\_\_\_는 네티의 편지를 전해주지 않고 가로채면서 두 자매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에 네티와 쉘리는 수십 년간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그리워하며 지내게

된다. 후에 미스터\_\_\_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쉘리에게 그 동안 숨겨왔던 네티의 편지를 전해준다. 하지만 그 후로 쉘리가 네티에 대해 듣게 된 소식은 국방성에서 온 네티와 그 가족들이 타고 아프리카를 떠난 배가 지뢰 때문에 침몰되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익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쉘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네티의 소식을 알아보려 해도 아무런 소식도 알 수 없었지만 이내 언젠가는 네티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며 언젠가는 네티의 얼굴을 꼭 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네티와 쉘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쉘리에게 네티의 존재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숨 쉬고 있었다.

쉘리의 삶은 슈그(Shug)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슈그의 등장은 쉘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슈그는 쉘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신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며, 육체적 성적 표현 방법에 대해 배우게 해 준다. 쉘리는 후에 아프리카로 떠난 네티의 편지를 남편 알버트가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도 슈그를 통해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분노로 칼 대신 바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녀를 다독여 준 것도 쉘리의 신관을 새롭게 정립시켜 준 사람도 슈그이다. 그녀는 쉘리의 남편인 알버트가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여자로 결혼을 원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어오던 블루스 가수이다.

슈그를 막연히 동경하고 있던 쉘리는 남편인 알버트가 병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던 슈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자 지극 정성으로 간호한다. 슈그는 쉘리와는 달리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이룬 상태였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으며 자기주장이 뚜렷한 신여성이다. 쉘리는 슈그를 돌보는 동안 그녀의 아름다운 외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도 동경하게 된다. 슈그는 처음엔 쉘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정성으로 자신을 돌보아 주는 쉘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두 사람은 친구 이상으로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게 된다.

쉘리의 자아성장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슈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쉘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쉘리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그 후에는 남편 미스터\_\_\_에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슈그는 남성들의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던 쉘리에게 “미스 쉘리” (Miss Celie)라는 노래를 만들어 쉘리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한다.

슈그가 불렀어요. 쉘리, 미스 쉘리. 그래서 나는 그녀를 올려보았어요.

그녀가 또다시 내 이름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부르려는 노래 미스 쉘리의 노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아플 때 그녀 때문에 내 머리에 떠오른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랬어요. ... 누군가 무엇을 만들어 거기에다 내 이름을 붙여 주기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74)

Shug saying Celie. Miss Celie. And I look up where she at. She say my name again. She say this song I'm bout to sing is call Miss Celie's song. Cause she scratched it out of my head when I was sick. ... First time somebody made something and name it after me.

슈그는 쉘리를 위해 “미스 쉘리의 노래” 를 불러주는데 누군가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준 적이 없었던 쉘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한다.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잊고 자아를 상실해가던 쉘리는 슈그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때문에 슈그가 쉘리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는 것은 쉘리에게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쉘리가 슈그를 통해 깨닫게 된 수 많은 사실들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신체의 아름다움이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게 학대를 받게 되는 표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증오하게 되었다.<sup>27)</sup> 때문에 쉘리는 자신의 육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쉘리는 슈그가 건넨 손거울을 통해 그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인식한다.

나 침대에 누어 옷을 발랑 들었어요. 속옷 얼른 끌어내리고요. 가랑이 사이에 다 거울 디밀었어요. 세상에. 웬 털이 그렇게 잔뜩 났는지. 그리고 밑구멍 두덩

27) Daniel W. Ross, “Celie in the Looking Glass: The Desire for Selfhood in *The Color Purple*,” *Modern Fiction Studies* 34 (1988): 70.



이 시커매요. 그런데 속에는 물 젖은 장미꽃 같았어요.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이쁘죠? 그녀가 문간에서 말했어요.  
이게 내꺼군요. 내가 말했어요. (79)

I lie back on the bed and haul up my dress. Yank down my bloomers. Stick  
the looking glass tween my legs. Ugh. All that hair. Then my pussy libs be  
black. Then inside look like a wet rose.  
It a lot prettier than you thought, ain't it? she say from the door.  
It mine, I say.

셀리는 이전까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못생겼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셀리는 슈그가 건넌 손거울을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던 자신의 육체를 천천히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 “물 젖은 장미꽃” (a wet rose)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면  
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흑인 여성의 몸  
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필요와 욕구에 의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들  
여다보고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자아를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셀리가 슈그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 뿐만은 아니다. 셀  
리는 슈그와 가까워지면서 육체적, 성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셀  
리는 단 한 번도 성적인 쾌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셀리는 의붓아버지 알폰소에  
게 겁탈을 당하고, 남편 알버트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의 성적 욕망을 해결해주는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셀리의 경험과 느낌은 슈그와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그래요. 내가 말했어요. 내가 그걸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 미스터 \_\_\_\_  
가 당신에게 해줄 거예요. 그건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몸 위로 올라와서 잠옷  
을 허리까지 치켜올리고는 쑤셔박아요. 대부분 경우 난 그곳에 있지 않은 것처  
럼 행동하죠. 그는 전혀 그런 눈치 채지도 못해요. 그는 나더러 기분이 어떻냐  
뭐 그런 건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할 일 하고는 내려가 잠들죠.  
(78)

Naw, I say. Mr. \_\_\_\_ can tell you, I don't like it at all. What is it like? He git

up on you, heist your nightgown round your waist, plunge in. Most times I pretend I ain't there. He never know the difference. Never ast me how I feel, nothing. Just do his business, get off, go to sleep.

썰리는 슈그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썰리에게 슈그는 ‘처녀’라고 말한다.

썰리는 슈그와 더욱 가까워지면서 여동생인 네티하고만 나눴던 의붓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녀가 낳았던 두 명의 아이에 대한 사실도 털어놓는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왔던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고백할 용기도 갖게 된다. 이전까지 자신의 아픔을 전해질 수 없는 신에게 쓰는 편지로 표현하던 썰리가 이제 자신의 상처를 직접 이야기할 상대를 만난 것이다.

조금씩 변화하던 썰리가 극도의 분노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미스터\_\_\_가 네티의 편지를 수년 간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 때문에 썰리는 그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 썰리는 실제 슈그의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를 충동적으로 면도칼로 찔렀을지도 모른다. 이때 슈그는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 하면서 썰리가 면도칼 대신 바늘을 들고 바지를 만들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돕는다.

암울한 현실에서 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곳, 썰리가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신이었고 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썰리의 의식 속에 자리한 신의 모습은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이는 가부장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좋아요. 내가 말했어. 그는 몸집 크고, 나이 많고, 키도 크고, 수영이 허약하고 백인이죠. 그는 하얀 옷을 입었고, 맨발로 돌아다녀요.

눈 파랗고요? 그녀가 물었어.

푸른 빛깔이 도는 회색이에요. 침착한 눈이죠. 하지만 큰 눈이에요. 속눈썹은 하얗구요. 내가 말했어. (195)

Okay, I say. He big and old and tall and graybearded and white. He wear white robes and go barefooted. Blue eyes? she ast. Sort of bluish-gray. Cool. Big though. White lashes. I say.

이렇게 썰리가 그리는 신의 이미지는 흑인보다 우월하게 여겨지는 백인 남성의 모습이다. 썰리는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의붓아버지 알폰소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신을 원망한다.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고 편지를 쓰지만 신은 자신에게 린치 당한 아버지, 미쳐버린 어머니, 그리고 더러운 개 같은 의붓아버지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여동생을 주었다고 불평한다. 썰리는 마침내 더 이상 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그 대상을 동생인 네티로 변경하며 “난 이제 더 이상 하느님한테 편지 쓰지 않고 너한테 쓰겠어.” (193)라고 각오를 다진다. 이전에는 신에게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은 자신의 현실의 비참함을 기록하는 것뿐이었으나 네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일상생활의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들까지 글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이는 곧 썰리의 자아가 회복되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점차 자아 발견과 성장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썰리는 슈그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게 된다. 썰리는 자신이 믿던 신은 자신에게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네티의 편지가 자신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믿어왔던 신을 부정했었다. 하지만 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슈그의 말에 커다란 위로를 받는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슈그가 말했어. 나 이렇게 믿어요. 하느님 당신 마음속과 다른 모든 사람 마음속에 살아요. 당신 하느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요. 그것이죠. 하느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그러니까 그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물었어.

어떻게 생기긴 뭐가 어떻게 생겨요? 그녀가 말했어. 그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건 당신 자신 포함한 어떤 다른 무엇하고도 떼어놓고 생각하지 못해요. 나 하느님이 세상만물이라 생각해요. 슈그가 말했어. 지금 존재하거나 과거 언젠가 존재했거나 앞으로 언젠가 존재할 모든 세상만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 느낌으로부터 기쁨 얻으면, 그럼 그것 발견할 셈이

쥬. (196-197)

Here's the thing, say Shug. The thing I believe. God is inside you and inside everybody else. you come into the world with God.

...Yeah, It. God ain't a he or she, but It.

But what do it look like? I ast.

Don't look like nothing, she say. It ain't a picture show. It ain't something you can look at apart from anything else, in including yourself. I believe God is everything, say Shug. Everything that is or ever was or ever will be. And when you can feel that, and be happy to feel that, you've found It.

슈그는 쥬에게 신은 어떤 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일부이며 내부에서 이를 찾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쥬는 슈그를 통해 신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인간이 숭배해야 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 끝에 쥬는 자신 편지의 수신인을 신 하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 나무, 하늘 등의 모든 것’으로 쓰면서 백인 중심의 남성 중심의 신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녀가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평범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동생 네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자신의 주소뿐만 아니라 서명까지 기록하게 된다.

테네시 주 멤피스  
슈그 에이버리 드라이브  
만인의 바지 회사 (217)

Your Sister, Celie  
Folkspants, Unlimited.  
Sugar Avery Drive  
Memphis, Tennessee

쥬가 편지에서 자신의 삶의 억압적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들에 쥬가 자신의 삶의 억압적인 상황을 묘사하도록 하며 독자들이 이를 통해 그녀의 내면의 고통을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sup>28)</sup> 초기에 쥬가 썼던 편지 속에서는 서명을 찾

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쉘리가 스스로를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쉘리는 자신의 주소와 서명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독립해가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쉘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인 알버트에게 정면 대응한다. 그 첫 번째 목소리가 슈그와 함께 멤피스(Memphis)로 이주하는 내용이다.

당신이 개처럼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게 문제죠. 내가 말했어. 당신과 헤어져 나도 내 세상 찾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 눈에 흙 들어가는 날도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고요.

뭐라구? 그가 물었어. 충격을 받았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 입이 딱 벌어졌어.

당신 나한테서 내 동생 네티 빼앗아 갔어요. 내가 말했어.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네티 하나뿐이었어요. (202)

You a lowdown dog is what's wrong, I say. It's time to leave you and enter into the Creation. And your dead body just the welcome mat I need.

Say what? he ast. Shock.

All round the table folkses mouths be dropping open.

You took my sister Nettie away from me, I say. And she was the only person love me in the world.

쉘리가 슈그와 함께 멤피스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알버트는 분개하며 반대한다. 여전히 쉘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락 없이는 쉘리가 어디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쉘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줬던 여동생 네티와 자신을 만날 수 없도록 떨어뜨려 놓은 알버트에게 이제껏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집을 떠나는 쉘리에게 미스터\_\_\_\_는 멤피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며 당신은 흑인이고, 가난하고, 못생긴 여자라는 등의 폭언을 퍼붓는다. 하지만 쉘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잘 해주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실패 할 것이며, 자신에게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서 두

28) Elliott Butler-Evans, *Race, Gender, and Desire: Narrative Strategies in the Fictions of Toni Cade Bambara, Toni Morrison, and Alice Walker* (Philadelphia: Temple UP, 1989), p. 164.

배나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미스터\_\_\_\_를 저주하고 집을 나온다. 썰리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은 즉 그녀의 억압되었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버트의 무조건적인 이기심에 대해 비난하고 그의 인격을 정면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삶의 고통을 토로한다. 썰리는 그녀의 인생 내내 의붓아버지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미스터\_\_\_\_와 결혼을 할 때도, 그의 폭력과 억압을 견뎌낼 때도 현실을 무저항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썰리에게 네티는 슈그를 제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단 한사람이고 네티 역시 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이 그녀가 그토록 참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 결과 결국 그녀는 알버트를 떠나게 된다.

썰리는 평생 억압과 속박 속에서만 살았지만 알버트를 떠나 슈그와 함께 멤피스로 이주하면서 그녀는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어 낸다. 멤피스의 생활에서도 슈그는 자신을 돕고 싶어하는 썰리에게 단호하게 하녀로 부릴 생각으로 그녀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해 주고,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썰리는 슈그에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그녀가 정신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인 독립이 썰리의 완벽한 자아 확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썰리는 알버트를 떠나 멤피스에서 정신적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독립도 이루어 내면서 자신만의 진정한 정체성 확립에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썰리는 슈그와 함께 멤피스로 온 후 슈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바지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멤피스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가사일이나 가족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능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게 된다. 썰리의 ‘바지만들기’는 큰 의미가 있다. 그 당시 바지는 남성들의 옷이라고 여겨져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입지 못했던 옷이다. 하지만 썰리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바지를 만드는데 바지를 입는 사람의 특징과 유용성을 생각하면서 바지를 만든다. 우선 썰리는 소피아의 언니 오렛사(Odessa)의 남편인 잭(Jack)을 위한 바지를 만드는데 그에게 어떤 바지가 필요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그의 필요에 맞는 부드러우면서 질

기고, 호주머니가 크고 빨아입기가 간단하며 발목이 끼지만 높기는 편한 바지를 만들어준다. 또한 슈그에게는 노래할 때 무대에서 입을 수 있는 바지를, 또 아프리카에 있는 네티에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바지를 만들어준다. 그녀가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면서 획일화되어 모두 똑같은 바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의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바지를 만든다는 것은 쥘리도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쥘리는 바느질을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바지를 만들고 이것은 양성간의 차이를 좁히는 상징이 된다.<sup>29)</sup> 쥘리의 바지는 더 이상 남자들만을 위한 옷이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쥘리는 남편 알버트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아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 쥘리가 떠난 후 알버트는 혼자 남겨져 처음에는 쥘리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암울한 삶게 된다. 특히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일을 견디지 못했고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들인 하포의 간호를 통해 다시 심신을 회복하고 쥘리에게 온 네티의 나머지 편지들을 돌려주고 나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쥘리를 자신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의미의 재결합을 제안한다. 쥘리는 이를 거부하지만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며 친구로 그를 받아들여 ‘미스터\_\_\_\_\_’ 라는 호칭 대신 그의 이름인 ‘알버트’ 로 그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된다. 후에 쥘리를 억압하던 당사자인 미스터\_\_\_\_, 즉 알버트도 바지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그토록 훌륭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데도 무척 오랜 세월이 걸렸지. 그가 말했어. 그리고 웃더구만.

그는 슈그만은 못해도 내가 얘기를 나눌 만한 상대가 되어 간단다. (281)

Took me long enough to notice you such good company, he say. And he laugh. He ain't Shug, but he begin to be somebody I can talk to.

29) Ross, p. 80.

셀리는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알버트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셀리가 자기 자신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알버트를 지지해주며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알버트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권위적이었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는 하포의 딸 헨리에타(Henrietta)가 아프자 그녀를 돌보려 노력한다. 또한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던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하며 여성의 일이라 여겨졌던 바느질도 하게 되는데, 그가 셀리에게 바느질을 배우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알버트는 셀리가 그를 떠난 것을 계기로 남성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여성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셀리는 남편인 알버트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긴 했으나 슈그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그녀를 의지한다. 그래서 그녀는 슈그가 다시 젊은 청년 저메인(Germaine)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이 때 셀리는 다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녀가 스스로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버트를 떠나 멤피스로 갈 때부터 그녀가 의지할 곳은 슈그 뿐이었는데 그런 슈그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에 다시 불안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많은 얘기를 한다. 나는 이런 말을 해. 셀리, 너의 경우에는 행복이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 슈그 이전에는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이제라도 행복을 좀 누리야 하며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심지어는 나무들도 네가 소유한다는 생각을 했지. 지구 전체를. 별들도. 하지만 너 자신을 봐. 슈그가 떠나니까 행복도 사라졌지. (263)

I talk to myself a lot, standing in front the mirror. Celie, I say, happiness was just a trick in your case. Just cause you never had any before Shug, you

30) Pasty J. Daniels, *Voice of the Oppressed in the Language of the Oppressor* (New York: Routledge, 2001), p. 115.



thought it was time to have some, and that it was gon last. Even thought you had the trees with you. The whole earth. The stars. But look at you. When Shug left, happiness desert.

쉴리는 슈그가 저메인과 함께 있기 위해 그녀를 떠난 후 느끼는 큰 슬픔을 자기 자신에게 토로한다. 이는 쉴리가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작품 서두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신에게 표현하는 모습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강해져서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쉴리는 스스로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슈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결국 쉴리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슈그를 떠난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슈그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이런 깨달음을 네티에게 쓰는 편지에서 “만일 그녀가 찾아온다면 나는 행복하리라. 만일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리라. 그러자 나는 내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단다.” (288-289)라고 표현한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은 쉴리의 가족에게 더욱 특별한 날이 된다. 바로 그동안 헤어져 생사도 모르던 동생 네티와 그녀의 아이들인 올리비아, 아담이 쉴리에게 돌아와 재회하게 되면서 드디어 완전한 통합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쉴리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동안 헤어져 지냈었던 가족과의 재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새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을 나타낸다. 의붓아버지와 남편의 억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쉴리는 소피아를 통하여 여성들도 저항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슈그의 영향으로 자신을 둘러싼 억압에 맞서 싸우게 되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쉴리가 주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찾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워커는 흑인 여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흑인 공동체 안의 통합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 2. 슈그 : 성적 자유와 실존의 주체성

슈그는 인기 있는 블루스 가수로 쉘리의 남편인 알버트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그의 아이를 낳았으면서도 결혼은 선택하지 않은 신여성이다. 그녀는 매사에 당당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기주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었다. 이러한 그녀가 돌아와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공연 포스터를 본 쉘리의 반응은 꽤 흥미롭다.

슈그 에이버리는 팔꿈치를 굽혀 손을 엉덩이에 집고 피아노 위쪽에 서 있어요. 그 여자는 인디언 추장 같은 모자를 써서요. 그녀는 입을 벌려 이빨이 모두 보였고, 근심걱정이라고는 전혀 엮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오시라, 모두들 오시라. 광고 쪽지에는 그러케 적혔어요. 여왕벌께서 다시 오셨도다. (26)

Shug Avery standing upside a piano, elbow erook, hand on her hip. Whe wearing a hat like Indian Chiefs. Her mouth open showing all her teef and don't nothing seem to be troubling her mind. Come one, come all, it say. The Queen Honeybee is back in town.

슈그는 여왕벌(Queen Honeybee)라는 호칭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가수였다. 그러나 인기 있는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자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보살핌 대신 조롱을 받는다. 심지어 교회 목사도 슈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내용으로 삼아서 돈 벌려고 노래 부르고 다른 여자들 남편과 놀아나는 여자, 바람둥이, 길거리의 여자 등의 표현으로 슈그를 비난한다. 이런 처지의 슈그를 알버트가 집으로 데려오면서 슈그와 쉘리의 만남은 시작된다.

쉘리는 슈그를 만나기 전부터 먼저 그녀의 사진을 보게 되고, 오랜 시간동안 슈그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슈그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쉘리는 몸이 아픈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간호한다.

나는 마치 그녀가 인형이거나 올리비아처럼, 아니면 엄마처럼 가꾸고 다듬는답니다. 나는 빗어 주고 어루만지며, 빗어 주고 또 다듬어요. 처음에 그녀는 어서 서둘러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약간 녹아 버린 것처럼 내 무릎에 길게 기대고 눕는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생각이 나요. 아마 엄마가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어찌면 할머니였는지 몰라요. 그녀는 또 다시 담배 하나 꺼내 물었어요. 나지막하게 콧노래 흥얼거리기 시작하면서요. (53)

I work on her like she a doll or like she Olivia-or like she mama. I comb and pat, comb and pat. First she say, hurry up and git finish. Then she melt down a little and lean back gainst my knees. That feel just right, she say. That feel like mama used to do. Or maybe not mama. Maybe grandma. She reach for another cigarette. Start hum a little tune.

슈그는 쉘리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엄마 혹은 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기도 하고 쉘리가 머리를 빗겨줄 때 음악을 흥얼거리다가 음악을 만들 기도 한다. 슈그는 쉘리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고 하포의 식당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다.

슈그가 쉘리의 간호를 처음부터 달가워한 것은 아니다. 처음 알버트의 집에 와서 쉘리를 만났을 때, 슈그는 쉘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당신 진짜로 못생겼군요.” (46)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아침을 차려주려는 쉘리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슈그는 한결같은 쉘리의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고 억압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쉘리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쉘리는 오래 전부터 슈그를 동경해 왔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 비친 슈그는 무엇일 하든 멋있고 훌륭하게 비춰졌고 슈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슈그는 쉘리에게 차가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여성들 간의 결속을 의미하는 퀼트(quilt)를 함께 함으로써 둘 사이에 자매애를 키워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바구니에 손이 닿는 대로 아무 조각이나 하나 집었어요. 치켜들고 햇빛에 비춰 보더군요. 얼굴 찡그렸어요. 이 거지 가튼 거 도대체 어떠케 꼬매죠? 그녀가 말했어요.

.. 처음 해보는 솜씨치고 정말 훌륭해요. 내가 말했어요. 그만하면 이쁘고 멋있어요. 그녀는 나 쳐다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하면 뭐든지 당신 보기에 멋있고 훌륭하게 생각되죠, 미스 쉘리.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별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웃었어요. 나 머리 떨구구요. (57)

She pick up a random piece of cloth out the basket. Hold it up to the

light. Frown. How you sew this damn thing? She say.

... That real good, for first try, I say. That just fine and dandy. She look at me and snort. Everything I do is find and dandy to you, Miss celie, she say. But that's cause you ain't got good sense. She laugh. I duck my head.

퀵트는 여성들이 모여서 자매애를 확인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면서 여성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로도 쥘리와 소피아가 이불을 만드는 일에 슈그도 함께 참여하는데 이 일을 통해 슈그가 쥘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그는 쥘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이제 알버트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 준 쥘리에게 미스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는다. 알버트는 쥘리를 항상 억압하고 업신여겼으나 슈그를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애정이 넘치며 그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슈그는 알버트의 폭력으로부터 쥘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떠나지 않고 남기로 결심한다.

나 떠나지 않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엘버트가 당신 때리겠다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때까지 안 떠나겠어요. (76)

I won't leave, she say, until I know Albert won't even think about beating you.

슈그는 항상 당당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이다. 그리고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고도 “난 아무도 보고 십지 안아요.” (50)라고 말하며 모성애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슈그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돌보아주던 쥘리를 보호해 주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은 그녀 내면에 숨어있던 모성애와 같은 연민과 애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슈그도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슈그는 쥘리가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쥘리에게 ‘처녀’ (virgin)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그녀를 위해 손거울을 건네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슈그가 ‘처녀’ 라는 단어를 재정의한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를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엄밀한 의미에서 쥘리는 어릴 적 의붓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결혼 후 알버트의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다. 그럼에도 슈그는 쥘리에게 ‘처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쥘리가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주체적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계화 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여성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몸에 대한 선택권이 여성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흑인 여성들에게 슈그는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매우 주체성이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자유분방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에게는 당당하게 관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녀는 주체적인 결정 하에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가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그녀는 이제까지 쥘리의 성적 관계에는 주체적인 결정도, 사랑도, 성적인 쾌락도 없었기에 쥘리를 ‘처녀’ 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슈그를 통해 쥘리는 자신은 불품없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 또한 슈그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두 팔 벌려 그녀를 안아주면서 함께 운다.

오, 미스 쥘리.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두 팔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팔은 검고, 매끄럽고, 등잔 불빛을 받아 광채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 울기 시작했어요. 나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슈그의 품에 안기니까 그때 모든 일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팠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가 기억 말이에요. 아버지의 머리를 마저 손질하는 동안 얼마나 쭈셨는지 하는 기억도요. 피가 줄줄 흘러내려 내 스타킹 더럽히던 생각도 났고요. 그 이후 절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던 아버지 태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네티의 일도요.

울지 말아요, 쥘리. 슈그가 말했어요. 울지 말라구요. 그녀는 내 얼굴 옆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에 뽀뽀하기 시작했어요. (113-114)

31) Hite, p. 117.

Oh, Miss Celie, she say. And put her arms round me. They black and smooth kind of glowy from the lamplight.

I start to cry too. I cry and cry. Seem like it all come back to me, laying there in Shug arms. How it hurt and how much I was surprise. How it stung while I finish trimming his hair. How the blood drip down my leg and mess up my stocking. How he don't never look at me straight after that. And Nettie.

Don't cry, Celie, Shug say. Don't cry. She start kissing the water as it come down side my face.

셀리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고작 14살이었던 셀리에게 아버지의 강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을 슈그는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공감하며 그녀를 보듬어준다. 아버지의 폭력에 더하여 남편 미스터\_\_\_로 부터의 성적, 신체적 학대는 셀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셀리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자책하지만 슈그는 셀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셀리는 강간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제시키고 충격적이었던 일들을 재구성하게 되고, 슈그는 셀리에게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환경을 제공한다.<sup>32)</sup>

슈그는 알버트의 폭력으로부터만 셀리를 보호해준 것이 아니었다. 슈그는 셀리와 가까워지면서 그녀의 동생 네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녀에게 네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리고 네티의 편지를 미스터\_\_\_가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슈그는 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알버트에게 접근해서 네티의 편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알버트가 외출한 때를 틈타 편지를 빼돌린다. 또한 편지들을 일일이 읽으며 차례도 맞춰주면서 알버트가 끊어버린 셀리와 네티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려고 애쓴다. 뿐만 아니라 알버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여 그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 셀리를 곁에서 다독이던 슈그는 셀리에게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일임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하지 말지어다”라는 어구를 되새겨주고 예수님도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힘든 일을 해냈다는 말을 덧붙이며, 동생 네티 이야기를 하면서 네티에 대한 일 때문에

32) Proudfit, p. 26.

살인을 하게 된다면 동생이 얼마나 실망하게 될지를 이야기 해 준다. 또한 슈그는 썰리가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면도칼 대신 바늘을 손에 쥐고 바지를 만들 수 있도록 충고한다. 이렇게 썰리가 정신적 위기를 겪을 때 슈그는 썰리가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안내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sup>33)</sup>

슈그는 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관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관은 그녀가 의붓아버지와 남편의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복종하도록 그녀를 묶어두던 하나의 방해물이기도 했다. 썰리는 백인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을 섬기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함을 털어놓는 편지를 쓰지만, 신은 썰리에게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고 대신에 더 큰 불행만 안겨준다고 생각한다. 썰리는 신이 자신을 배신했으며 세상이 자신을 억압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존재일 뿐이며 자신과 같은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믿어왔던 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썰리에게 슈그는 새로운 종교관을 제시한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어. 하느님은 그런 모든 감정 사랑한다니까요. 하느님이 가장 훌륭한 점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구요. 그리고 하느님 그런 만물 모두 사랑한다는 사실 알게 되면 우린 그걸 훨씬 더 즐기게 되죠. 그냥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일 벌어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함으로써 하느님 찬양하면 된다고요.

하느님이 그걸 더럽다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물었어.

그럼요. 그녀가 말했어. 그것도 역시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느님은 당신 사랑하는 모든 만물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지저분한 만물도 사랑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느님은 찬양하면 참 좋아하죠. (197)

Oh, she say. God love all them feelings. That's some of the best stuff God did. And when you know God loves' em you enjoys' em a lot more. You can just relax, go with everything that's going, and praise God by liking what you like.

God don't think it dirty? I ast.

Naw, she say. God made it. Listen, God love everything you love-and a mess of stuff you don't. But more than anything else, God love admiration.

33) Thomas F. Marvin, "‘Preaching’ the Blues’: Bessie Smith’s Secular Religion and Alice Walker’s *The Color Purple*,” *African-American Review* 28.3 (1994): 416.

슈그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우러러보기만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인간이 그러한 기쁨과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슈그와의 대화를 통해 썰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전통적인 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부정적이던 신에 대한 믿음도 새롭게 가지며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된다. 이토록 슈그는 썰리가 상실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성숙한 사랑의 대상을 찾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발달을 완성시키는 것을 돕는다.<sup>34)</sup>

슈그는 어딜 가든 주목받고 사랑받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슈그 내면에도 아픔은 존재한다. 항상 인기가 많던 그녀였기에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돌보아 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가 온 곳은 한 때 결혼할 뻔 했던 남자인 알버트의 집이었고 그녀를 돌보아 준 사람은 그의 아내인 썰리이다. 항상 빛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여성으로서 겪는 아픔은 존재한다.

아버지 미스터\_\_\_\_가 미스터\_\_\_\_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 슈그 에이버리라는 여자 그러케 대단하다는 얘기가, 하고 말이에요. 살갗은 숫처럼 새까마코, 그 여잔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안아. 다리도 꼭 야구방망이 가트고.

... 아무렴. 아버지 미스터\_\_\_\_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평생 망쳐버렸겠지. 그 말 듣고 미스터\_\_\_\_ 투덜거리더군요. 그리고 내 돈도 잔뜩 날아갔겠고. 아버지 미스터\_\_\_\_가 헛기침했어요. 그 여자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조차 업지.

난 그 여자 아버지 누구인지 전혀 관심 업섯어요. 미스터\_\_\_\_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어머니 요즈음에도 백인들 더러운 옷 가져다 빨아주지. 그리고 또 그 여자 나온 아이들 모두 아버지 다르단다. 모두가 너무 한심하고 복잡해. (54-55)

Old Mr.\_\_\_\_ say to Mr.\_\_\_\_, Just what is it bout this Shug Avery anyway, he say. She black as tar, she nappy headed. She got legs like baseball bats.

... Yeah, say Old Mr.\_\_\_\_. And throwed your life away. (Mr.\_\_\_\_ grunt right there.) And a right smart of my money with it. Old Mr.\_\_\_\_ clear his throat.

34) Proudfit, p. 23.



Nobody even sure exactly who her daddy is.

I never care who her daddy is, say Mr.\_\_\_\_\_.

And her mammy take in white people dirty clothes to this day. Plus all her children got different daddys. It all just too trifling and confuse.

알버트가 슈그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알버트의 아버지와 형이 차례로 집을 방문해서 슈그를 데리고 온 알버트에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을 듣고 슈그는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 소설 속 흑인사회의 모습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사일과 노동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결혼이 평생을 사랑할 인생의 동반자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자유로운 성격의 슈그에게 알버트와의 결혼은 자신을 억압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의 반대로 둘은 결혼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앨버트에게 나는 쓰레기이고, 나보다 먼저 우리 어머니 역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그랬어요. 그의 형도 똑같은 소리 했고요. 앨버트는 우리들 올타 주장하려다 꿈쩍도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앨버트에게 나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내세운 이유는 나 아이들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124)

His daddy told him I'm trash, my mama trash before me. His brother say the same. Albert try to stand up for use, git knock down. One reason they give him for not marrying me is cause I have children.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았을 것이고, 알버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도 돌보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도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슈그는 쉘리를 보듬어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픔도 치유하게 된다.

슈그는 알버트의 아들 하포의 여자 친구인 아그네스(Mary Agnes)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준다. 슈그를 동경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슈그처럼 훌륭하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며 용기가 부족했던 그녀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며 격려해주고 노래를 듣는 청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고 지도해준다. 주체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격의 그녀는 다른 사

람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 같았으나 쉘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메어리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게 된 것이다.

슈그는 쉘리와 각별한 사이가 되면서 쉘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쉘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아이를 낳게 된 사연을 이야기 한다. 무엇보다 알버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알버트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에 대하여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그동안 그녀는 성적으로도 매우 자유분방하여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른 이들의 입장은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버트와 결혼했던 여성인 애니 줄리아(Annie Julia)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가연은 애니 줄리아. 슈그가 말했어요. 그녀는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했죠. 맏소사, 나 너무나 야비하고, 너무나 사나웠어요. 나는 돌아다니며 걸핏하면 이런 소리 했어요. 나는 그가 누구하고 결혼하건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그 남자하고 계속 씹하겠어. (124)

Poor Annie Julia, Shug say. She never had a chance. I was so mean, and so wild, Lord. I used to go round saying, I don't care who he married to, I'm gonna fuck him.

그녀는 애니와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알버트를 한 주일씩이나 집에 가지 못하게 잡아뒀었다며 왜 그렇게도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여성의 천성으로 그저 마음을 뺏기만 바랐던 것 같다며 사실 알버트와 육체적인 관계 이외에 좋았던 것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면서 네티의 편지를 감추고 쉘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이 알던 모습과 다른 알버트의 모습에 실망한다. 쉘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이제껏 자신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슈그는 쉘리가 친아버지라고 믿었던 알폰소가 의붓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쉘리와 알폰소의 집에 함께 가준다. 자신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쉘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쉘리를 위해 함께 의붓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면서 진심으로 쉘리를 걱정하는 마

음을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슈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헤아리게 된다. 슈그는 쥘리와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해 돌아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여성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는다, 슈그는 쥘리를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남편인 알버트와의 사랑도 지속해 나갔고, 멤피스로 떠난 후에도 열아홉 살의 청년 저메인과의 관계에서도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와의 사랑을 지속해 나갔다. 처음에는 저메인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쥘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힘들어했지만 저메인과 여섯 달 동안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며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한다. 슈그는 쥘리를 만나기 전에는 남성들과의 사이에만 사랑을 느꼈지만 쥘리를 만나게 되면서 여성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이는 슈그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총체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흑인 남성들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저항의 의지 없이 현실에 순응하던 대부분의 흑인 여성들과는 달리 성적으로 개방되고 주체성이 강했던 슈그도 주변 여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

### 3. 네티 : 영적 자아의 발견과 성장

네티는 쉘리의 여동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쉘리와는 달리 똑똑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붓아버지 알폰소의 마음대로 알버트와 결혼한 쉘리와는 대조적으로 네티는 자발적으로 알폰소의 집을 나와 쉘리를 찾아간다. 네티는 여성의 삶에서 그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쉘리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티 그곳에 나하고 가치 안자 콩깍지 베끼거나 아이들에게 철자법 가르쳐 주고 해요. 나한테도 철자법 가르치고, 내가 알 필요있다 생각하는 다른 모든 공부 배우게 도와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티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끈임업시 애써요. 그리고 네티 훌륭한 선생이기도 하답니다.  
(17)

She be sitting there with me shelling peas or helping the children with they spelling. Helping me with spelling and everything else she think I need to know. No matter what happen, Nettie steady try to teach me what go on in the world. And she a good teacher too.

이렇게 네티는 쉘리에게 그녀를 자유롭게 할 도구, 즉 교육을 해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그녀가 소중하다는 신념을 전달하려고 한다.<sup>35)</sup> 네티는 쉘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썼고 미스터\_\_\_\_의 아이들에게도 철자를 가르치는 등 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네티에게 마음이 있던 알버트가 자신을 겁탈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다 결국 쉘리의 집에서도 나가게 된다. 네티는 쉘리의 집에서 나가기 전, 의붓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자아를 상실해가는 언니 쉘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맞서서 싸울 것을 설득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싸우기를 주저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언니가 마치 무덤 속

35) Proudfit, p. 23.

에 파묻히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한다.

그 못된 아이들하고 지내는 언니 이곳 남겨 두고 떠난다니 정말 싫어, 라구 네티가 말했어요. 미스터 \_\_\_\_는 말할 필요도 업고. 마치 언니 무덤에 파묻힌 꼴 보는 기분이야, 라구 네티가 말했어요.

죽는 만도 못하지, 라구 나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었다면 일 하지 안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나 그냥 이런 말만 했어요. 걱정 마라, 걱정 마. 하-느-님 (G-O-D)이라는 단어만 제대로 쓸 줄 알더라도 내 겨태 누군가 있는 셈이니까. (18)

I sure hate to leave you here with these rotten children, she say. Not to mention with Mr.\_\_\_\_. It's like seeing you buried, she say.

It's worse than that, I think. If I was buried, I wouldn't have to work. But I just say, Never mine, never mine, long as I can spell G-o-d I got somebody along.

네티는 쉘리의 집을 떠나 쉘리의 두 아이들을 입양한 선교사 부부인 새뮤얼 (Samuel)과 코린(Corrine)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된다. 아프리카로 떠난 네티는 그 곳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여성을 교육시키는 일에 주력한다. 쉘리의 남편인 알버트가 쉘리와 네티 사이를 이어주는 편지를 가로채고 있었지만 네티는 아무 답장 없는 언니 쉘리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쓰며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후에 네티의 편지를 읽게 되는 쉘리에게 네티의 편지는 보다 정련된 글을 통하여 언어적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프리카에 대해 알게 하고 그 전통을 배우는 지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네티의 편지는 쉘리에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새로운 지식의 가르침이 된다. 또한 그녀의 편지는 결국 쉘리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강화시킬 준비를 갖춰주며 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소외시키고 제한시키는 침입적인 억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sup>36)</sup>

아프리카로 향하던 네티와 새뮤얼 가족이 들린 영국의 박물관에서는 찬란했던 아프리카의 문화가 백인들에 의해 탈취되어 전시되어 있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때 유럽 사람들보다 뛰어난 문명을 이룩했었음에도 불

---

36) Bracks, p. 87.

구하고 몇 세기 동안 ‘고난의 시대’를 거쳤어. ‘고난의 시대’는 영국인들이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야. 그리고 아프리카가 겪은 ‘고난의 시대’가 바로 그들 자신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사실은 그들도 잘 잊어버리지.

수 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잡혀 노예로 팔려 갔대. 언니하고 나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는 셈이야, 썰리! 그리고 노예를 잡으려는 전쟁 때문에 도시들이 통째로 파괴되었어. 가장 튼튼한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아프리카는 질병이 만연하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 버리고 말았지.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악마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숭배해.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고. (139)

Although Africans once had a better civilization than the European (though of course even the English do not say this: I get this from reading a man named J. A. Rogers) for several centuries they have fallen on hard times. “Hard times” is a phrase the English love to use, when speaking of Africa. And it is easy to forget that Africa’s “hard times” were made harder by them.

Millions and millions of Africans were captured and sold into slavery-you and me, Celie! And whole cities were destroyed by slave catching wars. Today the people of Africa-having murdered or sold into slavery their strongest folks-are riddled by disease and sunk in spiritual and physical confusion. They believe in the devil and worship the dead. Nor can they read or write.

네티는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흑인들의 아름다운 피부와 그들의 활동적인 모습, 그리고 광활한 자연에 감탄한다. 그녀는 진정한 고향이라고 느끼는 아프리카에서 그 곳의 현실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흑인이라는 인종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것은 네티에게도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온갖 핍박과 폭력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던 썰리와는 달리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네티였지만, 그녀도 흑인 여성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혼란스러움을 겪으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네티가 썰리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올링카(Olinka)족이 등장한다. 올링카족은 흑인으로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족으로 흑인이 백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흑인이 백인의 선조라고 믿고 있었는데 네티는 그 이야기를 썰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들려주고 썰리는 이 이야기를 알버트에게 들려준다.

그들은 아담 이전의 모든 인간이 흑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어떤 여자를 죽이고 보니까 이 빛깔이 없는 아기가 뱃속에서 나왔다는군요.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여자가 먹었던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떤 여자가 그런 아기를 또 하나 낳았고, 어떤 여자들은 쌍둥이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얀 아기들하고 쌍둥이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최초의 백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어요. 그는 그냥 사람들이 죽이지 않은 최초의 백인이었을 따름이죠. (278)

They say everybody before Adam was black. Then one day some woman they just right away kill, come out with this colorless baby. They thought at first it was something she ate. But then another one had one and also the women start to have twins. So the people start to put the white babies and the twins to death. So really Adam wasn't even the first white man. He was just the first one the people didn't kill.

그들은 아담(Adam) 이전의 인류는 흑인이었고 태어나서 계속 죽었던 백인 아이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쫓겨난 최초의 백인이 바로 아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white”를 “naked”라고 생각하여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백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고 자신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독창적 신화는 백인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 물들어 있는 썰리와 네티에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민족적인 뿌리에 대한 자긍심뿐 아니라 자아 확립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네티는 같은 흑인으로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하여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올링카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통한 자아발견을 경험한다.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올링카족의 아이들을 가르치려던 네티는 그들의 현실에 실망하게 된다. 올링카 사람들은 여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스스로가 쓸모 없고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올링카 사람들은 여자를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냐고 내가 어떤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자란 혼자서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남편이 생겨야만 그 남편한테 쓸모 있게 돼요.  
(156)

The Olinka do not believe girls should be educated. When I asked a mother why she thought this, she said: A girl is nothing to herself; only to her husband can she become something.

때문에 네티가 아프리카에서 가르치는 여자 아이는 사무엘과 콜린의 딸인 올리비아(Olivia) 한 명뿐이었다. 올링카족의 이야기를 듣게 된 네티는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의 아이도 낳아 주지 않았고, 그런데도 쓸모가 많은데요.” (157)라고 대답하며 여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듯 네티가 부푼 꿈을 가지고 온 아프리카에서도 가부장제의 폐해가 만연해 있었다. 올리비아의 가장 친한 아프리카 소녀 타쉬(Tashi)는 네티와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지만 타쉬의 부모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 물들어져 있어서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타쉬가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

아프리카의 올링카족 남성들은 여성을 대하는 모습 또한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이었다. 여자들이 말할 때 남자들은 쳐다보지 않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말할 때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땅이나 발, 무릎만 볼 수 있었는데 네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서 의붓아버지와 있었던 때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올링카 마을의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들을 그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을 바꿔보려는 노력대신 가족과 남편을 위해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네티는 쉐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성차별에 있어서 백인사회와 동일한 가부장적 형태를 띠고 있는 올링카 부족의 현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의 삶이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통제시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네티는 서양인들의 경제적 침략 행위를 목격하면서 자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네티는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올링카 부족들에게 가해지는 서양인들의 침략



을 목격하게 된다. 영국계 고무회사는 올링카 부족들의 생활의 터전을 빼앗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런 모습을 본 네티는 그녀가 믿는 기독교의 신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오랫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백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올링카 마을은 황폐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인들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복종하거나 마을을 떠나 더 깊은 숲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네티에게도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어왔던 전통적인 신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전통적인 종교가 아프리카를 노예화하는 이념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사이를 획일화시키는 기능을 했다<sup>37)</sup>는 것이다. 자신이 이제껏 모든 사람이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사랑의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종교가 백인들에게 흑인들을 차별하고 통제할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게 된 네티는 흑인 선교사로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믿어왔던 신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된다.

네티는 한참 동안의 고민 후에 백인들의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한 백인들의 신에서 벗어나 좀 더 영적이고 내재적인 새로운 종교관을 정립하게 된다. 신의 존재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피상적인 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적인 편견 또는 인종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인 지금은 하느님이 우리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져.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존재가 되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영풀이나 그리스도처럼 어떤 물건이나 사람하고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리고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자유로워지지. (261)

God is different to us now, after all these years in Africa. More spirit than ever before, and more internal. Most people think he has to look like

37) Peter Kerry Powers, *Recalling Religions: Resistance, Memory, and Cultural Revision in Ethnic Women's Literature* (Knoxville: The Univ. of Tennessee Press, 2001), p. 46.

something or someone—a roofleaf or Christ—but we don't. And not being tied to what God looks like, frees us.

이를 통해 네티 자신 또한 흑인이라는 뿌리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자아를 찾게 된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많은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게 된 네티는 아프리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네티는 언니인 쉘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하는데 네티의 편지는 쉘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사고를 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sup>38)</sup> 이 글쓰기 과정은 편지를 읽는 쉘리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네티 자신에게도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흑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백인중심에 갇혀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성적,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난 내면적인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된다. 이것은 네티 자신에 대한 자존감으로도 이어져서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된다.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네티는 어릴 적에도 알폰소와 알버트가 자신을 억누르려 할 때에도 침묵으로 저항하지 않고 과감히 맞섰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우려 노력하고 미지의 땅이라고 여겨지던 아프리카로 가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진취적인 여성이다. 또한 아프리카에 선교활동을 떠난 후에도 그 곳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강조하는 사명감이 뛰어난 여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용감한 네티이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흑인으로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교육자이자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자아를 되찾고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

38) Daniels, p. 115.

## IV. 결론

위커의 『컬러 퍼플』은 철저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흑인 여성 문학이 그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그녀는 자신이 속해 있는 흑인사회에서 흑인 여성의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작품에 그려내려 노력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를 통하여 흑인으로서 정체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 작품은 미국 내 흑인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억압에 시달리던 흑인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컬러 퍼플』의 주인공인 쉘리는 백인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초반 부에 시누이인 케이 트와 여동생 네티의 싸워야 한다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을 사물화 시켜서 고통을 감내하기만 하던 쉘리는 슈그를 만나고, 남편이 네티의 편지를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쉘리는 그저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면서 오직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그 고통을 표현한다. 쉘리의 편지 속에는 남부 흑인의 사투리가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그녀의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이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쉘리는 언어를 통하여 그녀 자신의 의미를 창조하는데 직접 참여한다. 즉, 그녀의 글쓰기는 자신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쉘리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성 인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의 자아를 찾아간다. 소피아를 통하여 여성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슈그의 도움으로 남편을 떠나 멤피스에 가서 바지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쉘리는 동생의 편지를 숨겨왔던 남편 알버트에 대한 분노를 바지에 대한 창조성으로 승화시키면서 예술성을 표출하게 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낸다. 쉘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사과를 구한 알버트를 결국 용서하고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바느질을 그와 함께 하면서 이전의 종속적

인 관계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유명한 블루스 가수인 슈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다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런 그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옛 애인이자 썰리의 남편인 알버트에게 이끌려 그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항상 당당하고 강인했던 슈그는 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 둘은 진정한 자매애를 나누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슈그는 썰리가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신 또한 내면에 가지고 있던 아픔을 치유하며 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마지막으로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당차던 썰리의 여동생 네티는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의붓아버지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언니 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이후 네티는 썰리와 떨어져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고 나서도 교육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 한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것은 네티에게 흑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긍심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신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작품 속의 여성들은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하여 불합리한 현실을 이겨내고 저항할 힘을 얻는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여성들 사이에서의 의식으로 그치지 않고 흑인 남성들에게도 확대된다. 알버트의 아들 하포는 썰리가 집을 떠난 후 충격으로 힘들어 하던 알버트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보살피고 도와준다. 또한 알버트가 숨겨왔던 네티의 편지들을 썰리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한다. 이는 같은 남성인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간호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대의식이 여성들 사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남성들에게도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위커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흑인 여성과 남성 모두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이며 소설 속 여성 주인공들과 남성 주인공들 사이에도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진정한 흑인 사회의 화해와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위커는 사회의 불의에 직접 맞서는 여권운동가로서 흑인 여성의 문제를 그저 흑인 공동체 안의 문제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범위를 넓혀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자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녀는 작품 『컬러 퍼플』을 통하여 흑인 여성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받아왔던 억압과 차별, 갈등을 잘 표현하였다. 또한 흑인여성들이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자아를 인식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에 통합을 이루어 내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I . Primay Source

안정효. 『컬러 퍼플』. 서울: 도서출판 청년정신, 2007.

Walker, Alice. *The Color Purple*. New York: Harcourt, 2003.

### II . Secondary Sources

고지문. 「Alice Walker의 소설론과 작품세계: 삶은 변화와 성숙의 터전」. 『미국학논집』 제29집 1호 (1997): 93-125.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서울: 문예출판사, 1995.

김옥동. 「미국 흑인 문학의 계보」. 『외국문학연구』 제15호.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3): 33-54

김지나. 「Alice Walker의 *The Color Purple*에 나타난 인간성 회복」.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07.

박진수. 「Alice Walker의 *The Color Purple*에 나타난 자아 정체성의 추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1999.

천승걸. 『미국 흑인 문학과 그 전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여성 해방 문학의 논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Allan, Tuzyline Jita. *Womanist and Feminist Aesthetics*. Athens: Ohio UP, 1995.

Bracks, Lean'tin. *Writing on Black Women of the Diaspora: History, Language, and Identity*. New York: Garland, 1988.

Butler-Evans, Elliott. *Race, Gender, and Desire: Narrative Strategies in the Fictions of Toni Cade Bamard, Toni Morrison, and Alice Walker*. Philadelphia: Temple UP, 1989.

Cheung, King-Kok. "Imposed Silences in *The Color Purple* and *The Woman Warrior*." *PMLA* 103.2 (1988): 162-174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 Daniels, Pasty J. *Voice of the Oppressed in the Language of the Oppressor*. New York: Routledge, 2001.
- Donnelly, Mary. *Alice Walker: The Color Purple and Other Works*. Tarrytown, New York: Marshall Cavendish Benchmark, 2010.
- Fleissner, Jennifer L. *Women, Compulsion, Modernity: The Moment of American Natural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Gilbert, Sandra & Gubar, Susan.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79.
- Henderson, Mae G. “*The Color Purple: Revisions and Redefinitions*.” Ed. Harold Bloom, *Alice Walker,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9).
- Hite, Molly. “Romance, Marginality and Matrilineage: *The Color Purple*.” *The Other Side of the Story: Structures and Strategies of Contemporary Feminist Narrative*, Itaca: Cornell UP, 1989.
- Hooks, Bell. *Ain't I a Woman: Black Women and Feminism*. Boston: South End Press, 1981.
- Johnson, Yvonne. *The Voices of African America Women; The Use of Narrative and Authorial Voice in the Works of Harriet Jacobs, Zora Neale Hurston, and Alice Walker*. New York: Peter Lang, 1988.
- Jordan-Zachery, Julia S. *Black Woman, Cultural Images, and Social Policy*. Leiden: Taylor & Francis, 2009.
- Marvin, Thomas F. “‘Preachin’ the Blues’: Bessie Smith’s Secular Religion and Alice Walker’s *The Color Purple*.” *African American Review* 28.3 (1994): 411-421.
- Pochmara, Anna. *The Making of New Negro: Black Authorship, Masculinity, and Sexuality in the Harlem Renaissance*. Amsterdam: The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2011.

- Powers, Peter Kerry. *Recalling Religions: Resistance, Memory, and Cultural Revision in Ethnic Women's Literature*.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2001.
- Proudfit, Charles L. "Celie's Search for Identity: A Psychoanalytic Developmental Reading of Alice Walker's *The Color Purple*." *Contemporary Literature* 32.1.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1): 12-37.
- Rainwater, Catherine and Scheick, William J. *Contemporary American Women Writers-Narrative Strategies*. Lexington: The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85.
- Ross, Daniel W. "Celie in the Looking Glass: The Desire for Selfhood in *The Color Purple*." *Modern Fiction Studies* 34 (1988): 69-85.
- Showalter, Elaine. *A Literature of Their Ow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1977.
- Steinem, Gloria. "Do You Know This Woman? She Knows You: A Profile of Alice Walker." *MS* (June, 1982): 35-37, 89-94.
- Wall, Wendy. "Lettered Bodies and Corporeal Texts in *The Color Purple*."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6 (Spring, 1988): 83-97.
- Wisker, Gina. *Teaching African American Women's Writing*. New York: Martin's Press, 2010.



<Abstract>

Black Women's Self-awareness and Identity in *The Color Purple*

*Yim, Yeji*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Black women had lived in a circumstance of double oppression not only by racial discrimination as African Americans but also sexual discrimination as women in American society. White people have silenced people of color to keep protect leadership and supremacy since the Civil War and many African Americans conformed with this reality without stating their opinion. Black men tried to project the discrimination that they received on to Black women in order to assert their masculinity and superiority. In the case of literature, the talents and efforts of Black women has been alienated, but the appearance of Black feminist critics and the presentation of excellent works of talented Black women writers has made them leaders in the realm of African American Literature.

*The Color Purple* by Alice Walker is a work that describes the life of a black woman named Celie. She had lived with oppression in a male-dominated society, and was reborn into maturity by interacting with the other independent women around her. This work is Walker's third novel and it represents variou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African American society. Also, she attained glory by receiving the Pulitzer Prize and The American Book Award.

Walker explains the tragic and oppressive lives of Black women in that time in

history via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protagonists Celie and Nettie. The novel was a sensation in the Black community, especially among Black women who had suffered from oppression for a long time. Through this work, African American women's literature strengthened its position one that had until then been isolated by Eurocentric American society.

In this novel, Celie establishes her identity by redefining beauty and her concept of God. After living in oppressive circumstances, Celie meets a Blues singer named Shug, who recovers Celie's identity by treating her hidden pain as a woman and a mother. Also, Celie's younger sister Nettie discovers her identity as a Black woman and a Christian through missionary in Africa.

Walker is a writer who is involved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various ways and she tries to help Black women find their identities by redefining the problem of Black women as one not limited the problems inside the Black community but as inclusive of the problems of disadvantaged groups. She not only established these identities by overcoming discrimination and abuse that the had received, but also tried to create unity in the Black community by encouraging reconciliation between men and women of colo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7.